

退溪의 朱子 理解**

윙치트 찬 (Wing-chit Chan)*

이 간단한 연구는 退溪(1501~1570)가 朱熹(1130~1200)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이전에 본인은 退溪의 저술과 한국, 일본 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검토했어야 했을 것이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약간의 그의 저술에 대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선택한 저술은 3가지인데, 朱子の 생애를 다룬 『朱子行狀輯注』와 이론을 다룬 『朱子書節要』, 그의 제자들을 다룬 『理學通錄』이다.

新儒學 연구자들이 알고 있듯이, 朱熹研究의 초보적 자료는 그의 오랜 제자이자 사위인 黃榦(勉齋, 直鄉, 1152~1221)의 『朱子行狀』이다. 이것은 그의 死後 20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른 관점과 깊은 객관적 반성을 제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철학자의 생애와 사사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공정하며 이해가 깊은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行狀에 대한 주석으로 나의 주목을 끈 것은 退溪에 의한 것인데, 山崎道夫 교수는 그것에 대한 훌륭한 논문을 썼다. 山崎道夫 교수¹⁾에 의하면 退溪 주석의 <行狀>은 일본에서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淺見綱齊(1652-1711)는 그것을 적어도 네번은 강의했고, 그의 제자 若林強齊(1679-1832)는 학당의 교과목에 포함시켰다.²⁾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

* 전 콜롬비아 대학 교수

** 원제: How T'oegye Understood Chu Hsi

이 논문은 1981년 11월, 퇴계선생 탄생 48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2호(1981년) 게재논문

1) 『黃勉齋集』, 『正誼堂全集』, ch. 8. 혹은 『勉齋集』, 『四庫全書珍』, ch. 36.

서는 <行狀>에 주석이 달리지거나 교과서로 쓰인 적이 없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行狀을 중국보다 중요하게 받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山崎道夫 교수도 지적하듯이 胡居仁 敬齋(1434-1484)는 가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읽도록 권하였다.³⁾

중국에서는 훌륭한 선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석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교과목에 포함된 古典과 다른 자료도 너무 많았다. 退溪가 연구 보조로서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논평을 하기 위해 그것에 주석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석에 반해, 退溪의 것은 간단하고 선택적이다. 예를 들어 行狀에 인용된 기록에 대한 논평은 없고, 그것이 왜,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언급만이 여기 저기 있을 뿐이다. 退溪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宋史의 傳記는 너무 짧고, 朱熹 제자 李方子(公晦, 果齋)의 <年譜>와 李幼武의 <皇朝道學名臣外錄>은 간단하거나 세부적이기 때문에, 退溪는 이 세 자료를 가지고 行狀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山崎道夫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하였데, <延平答問>, <續資治通鑑>등의 것들을 이용하였다.⁴⁾ 그것은 萬曆 4년 그의 제자 趙月川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원래 그것은 『理學通錄』의 제 1권이었으나 독립된 저술로 통용되었다.

退溪가 行狀 研究에서 행한 가장 현저한 공헌은 다른 정보의 추가이다. 朱熹의 생애에서 중요한 거주지에 대해 退溪는 그것을 정확히 위치 지우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가 생애의 전반부에 살았던 崇安省은 수도 建寧에서 북쪽으로 240리이고⁵⁾ 屏山은 省의 수도 남동쪽이다. 우리는 退溪에게서 다음의 사실을 안다. 朱熹가 1191년부터 죽을 때까지 살

2) 山崎道夫, 『朱子行狀退溪輯注の意義』 『退溪學報』 제19호(1978), pp.132~402.

3) Ibid. p.412.

4) Ibid. p.416.

5) 이것과 그 다음의 참조는 교토의 朝倉儀助에 의해 간행된 시대 미상의 日本版 退溪著作에 의한 것이다.

있던 建陽省은 建寧에서 북쪽으로 120리이며, 뒤에 朱熹자신에 의해 이름 붙여진 考亭은 당 왕조가 제사지내기 위해 황제의 칙령에 건설한 三桂에 있는 수도의 서쪽에 있다. 朱熹가 자신의 이름으로 택하기도 했던 雲谷에 그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인 晦菴이라는 작은 움막을 1171년에 세웠는데, 이것은 建陽 북서쪽 70리되는 山의 꼭대기에 있다. 그리고 1183년에 지은 武夷은 崇安에서 30리 남쪽의 武夷山에 있다(실제로 현재의 지도가 그 山은 崇安의 北西에 있음을 보여준다). 朱熹가 1191년에 皇室 편찬자가 됐다는 것이 行狀에 있는데, 退溪는 그것은 史活(1106-1194)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첨가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戴銑(1496cs)의 『朱子實記』(1513)에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자료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退溪의 시대와 그 이후에도 가장 권위 있는 傳記자료이며 王懋竑(1668-1741)의 『朱子年譜』이전까지 朱子の 傳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退溪가 朱熹를 황제의 알현에 추천한 宰相이며 고위 관직자의 이름을 밝힌 첫번째 사람이다. 그는 또 朱熹가 고향이라고 불렀던 新安은, 晋代(264-420)에는 그의 조상이 살았던 徽州라는 것을 밝혔다. 또 朱熹는 황제에게 보내는 上疏에서 관리를 뽑는 권한을 韓侂胄에게 위탁하였으며, 道를 구하였으나 너무 멀리 간 사람은 頓悟를 중요시하는 陵象山(九淵 1139-1193)과 江西學派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론이 너무 낮은 사람은 실제적 결과를 중시하는 陳亮(同甫 1143-1194)과 浙江學派라고 하였다.

이상은 단순한 확인일 뿐이며, 朱熹에 대해 특별한 빛을 던져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戴銑은 朱熹의 스승 劉子翬(屏山, 1101-1147)에 의거해서, 朱子の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劉에게서 배운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退溪는 똑같은 글에서 길게 인용하면서 『이것은 모두 劉에게서 배운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간단한 언급은 朱熹가 劉로부터 더 이상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朱子는 그가 道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듯이, 그를 儒家로 나가게 한, 李侗에게 가게 한 이유이다.⁶⁾ 屏山은 그에게 『易學』의 <復>의 이론을 가르치

면서 근원에로의 복귀의 중요성과 <省悟身>⁷⁾ 및 <修身>⁸⁾의 이론을 강조하였다. 이 가르침은 인용된 글 속에 있다. 이것들은 훌륭한 전통 儒家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劉와 胡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朱熹는 만족하지 못하고 李侗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추구하였다.

退溪가 胡憲을 언급하는 朱熹의 詩의 선택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李方子 『年譜』에 의하면, 胡는 얕은 관직을 떠나서 20년 동안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159년 70고령에 황실 도서관 사거(司書)의 직책을 받아 들였다. 儒家的 전통에서는 통치자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文王에게 조언하는 80세의 낚시꾼같이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다. 그러나 오랜 은둔 끝에 늙은 나이로 관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것은 부당한 가정이지만 孤高함에 대한 유가적 감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한 초청을 거부하려고 한다. 胡憲이 초청되었을 때 朱熹의 나이는 단지 30이었다. 그는 스승에게 고별을 고하는 詩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스승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진심으로 백성에게 봉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소매 속에 손을 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후에 그는 『靑山은 여전히 푸르다』라는 詩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朱熹는 풍자적이라고 알려 있다. 그래서 胡宏(玉峰 1105—1155)은 『靑山은 늙지 않는다』라는 詩를 썼는데, 풍자로부터 胡憲을 규제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戴銑이 『朱子實記』에서 세 詩를 인용하면서, 소매 속에 손을 넣는다라는 구절을 생략하고, 『우리는 朱熹가 道를 선양하는 사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⁹⁾ 『朱子年譜』에서, 王懋竑은 詩를 모두 생략하였다. 그러나 그의 『年譜』를 보충하는 『考異』에서, 詩를 실는 것이 당시 수도

6) 『朱子語類』, ch 104. sec 37(中正書店, 臺北, 1970)

7) 『論語』 1:4

8) 『大學』 ch 2.

9) 『朱子實記』(廣文書局, 臺北, 1972) p.91

인 臨川에로의 황제의 소환을 거부했던 이유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胡宏의 詩는 논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¹⁰⁾ 退溪의 『輯注』에는 『靑山은 여전히 푸르다』라는 구절만이 논평 없이 인용되고 있다. 소매에 대한 구절이 왜 생략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비판적이고 아마 退溪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靑山은 여전히 푸르다라는 구절은 왜 인용됐는가? 그는 王懋竑보다 후세에 살았기 때문에 王의 견해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한 세기 반이나 먼저 살았었다. 나는 退溪가, 朱熹는 그의 스승의 孤高함을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했다고 믿고 싶다.

1188년에 다른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朱熹는 황제에게 諫하었는데, 그에게 여러 代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력 있는 관료와의 의견을 불일치 때문에 八월에 수도 밖의 관직(外職)에 임명되었다. 11월에 황제에게 疏를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대자로 하여금 조언을 할 수 있게 하며, 인재를 신중히 등용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진작시키고, 사회 개혁을 시행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군사적 실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¹¹⁾ 이전의 上疏에서 그의 향상된 주안점은 침략적인 金나라와 화평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화평에의 거부는 그를 여러 번 정치적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2,000字 이상의 이 긴 상소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빠져 있다. 그는 그의 정책을 바꾸어 자신의 반대 의사를 약화시켰는가? 退溪는 朱熹의 제자인 楊復를 인용하였다. 이는 『위대한 기초가 확립되고, 六辰疏가 시행되는 때에, 中原이 회복되지 못하고 적이 분쇄되지 않으면 나는 무릎 꿇고 죽을 것이다』라는 上疏를 재인용하면서, 언제 우리 스승이 적에게 복수하는 도덕적 원칙을 잊어버렸느냐고 물었다. 楊復을 인용한 사람은 退溪 한 사람 뿐만은 아니다. 戴의 『實記』와 王의 『年譜』도 그를 인용하였다. 退溪에게

10) 『朱子年譜』, 『叢書集成』, pp.15. 248-248

11) 이 上疏는 『朱子文集』과 『四部備要』에서 발견된다. 이 책들은 『朱子大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독특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논평이 『輯注』에서 가장 길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는, 朱熹는 가장 孤高한 사람이고 굽히지 않는 신념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남기기를 원했다.

이런 맥락에서 朱子の 楚辭주석에 대한 退溪의 언급이 주목되어야 한다. 1195년 朱熹는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이 주석을 썼다. 그의 제자 楊楫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표현에서, 우리의 스승은 시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그는 우리 학생들에게 楚辭의 주석을 보여 주었다. 나는 배움을 한 뒤에, 보통 학생을 가르침에 우리 스승은 먼저 四書六經으로,¹²⁾ 그 다음에는 史와 記였다고 생각하였다. 奉漢이후의 서적에 대해서, 그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왜 지금 그가 楚辭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스승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도 감히 묻지 못하였다. 戴銑은 『朱子實記』에서 楊楫의 말은 선비답고 깊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였다.¹³⁾ 退溪도 같은 말을 인용하였으니,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中國文學徒는 屈原이 나라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楚辭를 썼다는 것을 안다. 退溪가 戴銑이 그랬듯이, 楊楫을 인용한 것은, 朱熹가 생애의 끝까지 국가 공공의 일에 실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行狀에는 주자의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다. 戴銑은 1170년에 建陽에서 그의 어머니를 정사 지내고 나서 朱熹은 崇安의 집으로 가 매달 초하루와 보름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적고 있다.¹⁴⁾ 그러나 『實記』는 朱熹이 그의 말년 몇 년간에 걸쳐서 헌신한 儀禮書에 관한 서적의 편찬에 더욱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王懋竑은 이 사실을 『年譜』에서 빼고 있으며 다만 그 사실을 그의 『考思』에만

12)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 원래 『樂經』도 있었으나, B.C. 3C 전에 산일되었다. 그것은 周體로 대체되었다.

13) 『實記』 p.197

14) Ibid. p.100

적고 있다. 그러나 朱熹의 儀禮書 편찬에 관해서는 매우 길게 쓰고 있다. 그러나 朱熹의 儀禮書 편찬에 관해서는 매우 길게 쓰고 있다.¹⁵⁾ 매우 대조적으로 退溪는 그 편찬을 세 마디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朱熹의 종교적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제적 다른 모든 전기에는 없는 참된 통찰이다.

위의 주석은 朱熹의 <情>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退溪의 『輯注』는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朱熹와 李侗의 관계를 주석하면서 그는 朱熹의 편지 중에서 하나와, 朱熹의 질문에 대한 李侗의 답변과, 朱熹의 대화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 朱熹가 李에게서 배운 주된 가르침, 즉 고요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情>이 일어나기 전의 <未發>의 狀態를 관찰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實記』¹⁶⁾와 『年譜』¹⁷⁾ 모두에서 강조된 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에 덧붙여 退溪는, 李侗이 朱熹에게 原理(理)는 하나이지만 그것의 나타남은 여럿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다. 이 <理一分殊>의 주장이 新儒家思想의 중심적 불교의 하나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나는 李侗이 그를 불교에서 떠나게 한 후에 程頤(伊川, 1033-1107)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程頤에게 끌렸다는 것과 李侗이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은 情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관찰하라는 이론이 아니고, 理一分殊의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는 李侗과 朱熹와의 대화에서 理一分殊가 靜의 주장보다 더욱 많이 얘기되었고 가장 긴 대화는 理一分殊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⁸⁾ 退溪는 이러한 變異의 노선을 인식하는 데에는 많은 확신을 얻었다.

退溪는, 朱熹이 믿는 바와 그가 李侗에게서 배운 내용에 대해 확신을

15) 『年譜』 pp.42, 262-265.

16) 『實記』 pp.84-86

17) 『年譜』 pp.249-250

18) "Patterns for Neo-Confucianism: 왜 朱熹는 程頤와 다른가"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5/2(1978) pp. 101-104.

가졌으나, 결코 독단적이지는 않았다. 戴銑과 王懋竑은 1180년 皇帝가 朱熹의 上疏를 읽은 후 매우 화를 내었다고 말했다.¹⁹⁾ 그러나 退溪는, 皇帝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李方子の 『年譜』에서 인용한 후, 이 두 설명은 서로 다르며, 자신은 어느 편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1181년 朱熹는 江西지 역의 곡물 창고와 차, 소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行狀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가 泗川지방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皇帝가 그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가까운 江西에 직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實記』와 『年譜』에서 받아들여진 해석이다. 그러나 퇴계는 宋史에서 인용한 다른 설명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즉, 그 임명은 朱熹의 재능을 활용하려는 고위 관리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는 說이다. 1193년 長沙의 지사로서의 임명에 대해 『實記』와 『年譜』는, 한 포로가 귀환하여 보고하기를, 적국인 金이 朱熹에 대해 물어 보았으며 그가 朱熹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곧, 朱熹은 그 직위에 임명되었다고 하는 해설을 채택한다. 退溪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宋史에서, 宰相인 留正이 朱熹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꼈으며 그가 정부 내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說을 인용한다. 前者의 두 說이 朱熹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뒤의 說은 칭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모든 것은 退溪가 朱熹을 애호하기는 하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退溪의 주석에서 몇 개의 잘못을 발견하였다. 朱熹의 祖父가 1165년에 사망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福建의 지사職에서 물러났었으므로, 安徽省의 徽州로 그의 가족을 데려가기에는 너무 가난했다. 그 때문에 전 가족은 福建에 정착하였고 거기에는 朱熹이 태어났다. 李方子の 『年譜』는, 가족이 徽州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方臘의 반란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²⁰⁾ 『實記』는 이 說을 받아들이나, 가족의 가난도 인정하난, 빈곤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年譜』는 方臘의 반란이 1061년 일

19) 『實記』 p.122 ; 年譜 p.291

20) 『年譜』 pp.1과 142

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빈곤설만을 인정한다. 朱熹가족의 빈곤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히 退溪편의 중대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빈곤은 朱熹 일생중 눈에 띄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退溪는 『實記』에 따라서,²¹⁾ 朱熹이 1160년 李侗을 방문하고 西林書院에 한달간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朱熹 자신이 그곳에 여러달 머물렀다고 말하는데,²²⁾ 이점은 『年譜』에서 지적된 것이다.²³⁾ 西林書院은 1194년에 지어졌는데 1192년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1195년 관직에서 해임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朱熹은 萬字이상의 상소문을 지어 皇帝에게 간신을 피할 것을 각언하려 하였다. 그의 제자들은 커다란 위험이 따를 것을 짐작하고 점을 쳐 보았다. 『行狀』을 점괘에서 33번째 괘인 遁다음에 13번째 괘인 <同人>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朱熹은 물러나서 침묵을 지키고, 상소문의 초안을 불태웠다. 그러나, 『實記』에 따르면, 遁封 다음에 37번째 괘인 <家人>이 나왔다고 한다.²⁴⁾ 退溪는 『實記』보다 『行狀』의 說을 따른다. 王懋竑은 두번째 괘가 家人이 아니라 同人이었다면 괘의 하반부만이 예언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同人이란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²⁵⁾ 同人과 家人의 차이는, 前者가 옳다고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관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옳으며 家人일 경우는 종속된 사람이므로 복종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朱熹은 포기하는 자신을 은퇴한 老人이라 칭했다.

『朱子書節要』에 되돌아가면, 우리는 朱熹의 가르침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退溪가 58세이던 1558년에 완성되었다. 序文에 의하면, 退溪는 『朱子文集』을 1543년까지 보지 못했다고 한다. 退溪는 朱子の 서간을 다른 저술들과 비교해 보고, 朱熹의 다른 저술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기록된 문답처럼 朱子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반면, 서한들은

21) 『實記』 p.15.

22) 『朱子文集』 2 : 11a 『超西林可師大觀軒』

23) 『年譜』 p.15.

24) 『實記』 p.196.

25) 『年譜』 p.335.

모두 朱子 자신의 글이며, 특정한 상황과 인물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우기, 이 서한들은 한 사람의 학습과정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退溪는 朱熹의 서한들 중 약 1/3을 뽑아 14章으로 이루어진 『朱子書節要』를 편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편집을 한 것은 退溪가 처음이 아니다. 序文에 의하면, 王柏에 의한 것이 있었으나 朱傳되었다고 한다. 또 1158년이라고 표시된 退溪의 著述에 대한 王俊良의 後記에 의하면 吳思菴에 의한 편집도 있었으나 역시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退溪의 편집이 사실상의 原本이며, 필자가 아는 한 그런 종류의 편집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退溪는 『朱子文集』에서의 편지의 차례를 따르며 몇통의 답신만이 누락되었다. 각 章의 序頭에 退溪는, 답신인의 성명목록과 짝맞춘 전기를 기술하였다. 그는 편집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날짜를 밝히고 古文體의 用語와 문학적 역사적인 引喩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편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군데에 註를 달고 있다. 이상한 일은 편지의 날짜나 답신인의 이름이 『文集』에 나와있는 경우에도 退溪가 그것들을 생략하는 때가 있다는 점이다.²⁶⁾ 朱子는 편지에 註나 해설을 덧붙였다. 退溪는 이들을 多數 포함시키고 있으나, 빠뜨린 것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朱子는 제자인 曹建(立之, 1191)에게 보낸 편지에서, 陵象山의 제자 包楊(顯道)은 독서와 학습은 仁義에서 길을 막아버림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단언했다고 말하고, 楊子道(方)에게서 包가 南豐²⁷⁾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었다고 註를 달고 있다. 讀書는 (格物致知)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朱子學派와 (尊德性)²⁸⁾만을 강조하는 陵學派간의 논쟁의 중심문제였다. 그것은 과장되기는 했지만, 경쟁하는 두 학파를 첨예하게 구분하는 爭點인 것이다. 朱熹는 위의 언급이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註를 단 것이다. 불행히도 退溪는 그것을 생략

26) 편지가 없는 참조는 『朱子書節要』와 『實記』이고, 편지가 있는 참조는 『朱子文集』에 의한 것이다.

27) 南豐은 江西에 있는 지방이다.

28) 『中庸』 ch. 27.

해버렸지만, 이러한 생략은 거의 없다. 退溪는 程兄弟의 매우 중요한 註와 함께 朱子の 註를 포함시키고 있다. 朱子는 절친한 친구인 張栻(南軒敬夫, 1133-1180)에게 보낸 편지에서, 程顯의 完成은 本然에 의한 것이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반면, 그의 동생인 程伊川은 지극한 노력에 의해 天才를 능가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두 형제의 비교는 朱熹의 著述의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찬사라고 일컬어진다. 다행히도 退溪는 이 註를 빠뜨리지 않았다.

退溪는 또한, 그 자신의 해설을 붙이고, 배후의 지식을 보충하기도 하며 어떤 항목은 논의하기도 한다. 또한 보충하기도 하며 어떤 문장의 의도를 지적해내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朱熹의 잘못을 정정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의 註와 해설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 나는 退溪의 註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120년에 사위인 黃榦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 退溪는 三月달이라고 註를 달았다. 그는 더 정확할 수 있었는데도, 朱熹이 죽기 전날인 8月이라는 것만을 첨가하였다.

그 책의 앞부분에서 退溪는 그가 중요하게 여긴 몇개의 문장들을 옆에 점을 찍음으로써 강조를 하였다. 관찰해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은 모두 도덕적 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같은 사람에게 보내진 여러 통의 편지 중에서 오직 하나, 또는 긴 글중에서 오직 한 문장만이 선택되었다. 退溪는 도덕적 계기와 자극이라는 그의 주된 목적을 굳게 고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책이 평가된 것은 틀림없다.

그는 朱熹의 편지들에만 한정시키고, 특정한 도덕가치를 황제에게 주장하는 소(疏)와 왜 그가 관직에 나아가고 사퇴했는가를 설명하는 정치적 문서, 또 仁과 敬에 관한 논문²⁹⁾들, 또는 그의 깊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詩들을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언제 관직에 나아가고

29) 上疏에 대해서는 『朱子文集』 ch. 11-14를 보라. 관직에 관한 기록은 ch. 22-23을 보라. 仁에 대해서는 67:20a-21b를 보라.

언제 나아가지 않는가에 관한 朱熹의 강한 신념과 어떻게 仁과 敬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朱熹의 가르침을 놓칠 지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서은 피아니스트가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하지 못하다. 문제는 그의 일반적인 도덕적 가르침들이 『朱子書節要』에서 다루어졌는 가이다. 대체적으로는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節要 그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가? 『朱子文集』은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씌여진 2,000통의 편지를 수록하고 있다. 각각의 편지를 자세히 연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특정한 주제들에 관한 몇개의 그룹을 연구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잘 다루어졌는가를 보려고 한다. 朱熹의 편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太極에 관한 논쟁에서 그가 陵象山에게 보낸 것들이다. 文集에는 陵의 형제들에게 보내진 二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陵九齡(子壽, 1150-)에게 두 편, 그리고 陵九韶(子美, fl. 1150-)에게 세 편, 그리고 陵九淵(子靜)에게 六편이다. 退溪는 종교적 의식에 관한 子壽의 두 번째 편지를 뽑았다. 子美에게 보내진 두 편 중에서는 첫 번째 것만이 사용되었다. 거기에서 朱熹는 周敦頤(濂溪, 1017-1073)의 <無極而太極>³⁰⁾에 대한 주장에 대해 無極이 없이는 太極은 다만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능히 사물들의 근본이 되지 못한 것이고, 太極이 없으면 無極은 空虛하고 사물들의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옹호한다. 논쟁은 양편 모두 기분 좋지 않게 끝난다. 그후 1188년에 陵象山은 논쟁을 기분좋지 않게 끝난다. 그후 1188년에 陵象山은 논쟁을 제기하고 論敵 朱熹에게 2,000 단어의 긴 편지를 쓴다.³¹⁾ 같은 해의 답변에서 朱熹는 陵象山을 논박한다. 陵象山은 無極은 유가의 성인들에 의해서는 결코 쓰여진 적이 없는 도가들의 용어라고 주장하고, 極은 中을 의미하며 형이상학적인 실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周子는 無極

30) 『周子全書』 시작 부분인 『太極圖說』의 첫문장

31) 이 편지는 『象山全集』, 『四部備要』 2:1a-7b에서 발견된다.

과 太極을 두 개의 다른 물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박에서 朱熹는 바로 공자가 無極(易經에서)이라는 용어를 쓴 최초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周子를 無極이라는 용어를 쓴 최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太極은 중심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中心 그 자체는 아니며, 無極은 그것의 표현불가능한 형태에서의 太極일 뿐이며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陵象山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退溪가 사용한 유일한 편지이다. 그러나 朱熹 편에서의 근본적인 주장들은 모두 나타나 있다. 나는 두번째의 근본적인 주장들은 모두 나타나 있다. 나는 두번째와 세번째의 두개의 편지가(C36 : 6a-7a) 더 수록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朱熹는 陵象山이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 일상적인 일들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朱熹와 陳亮은 1184과 1185년 사이에 유명한 論爭을 벌였다. 陳亮에 보내는 13통의 서한중에 五통(4회와 6회서부터 9회)이 그 논쟁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長文이다. 朱熹는 義와 孝가 양립할 수 있고, 제왕과 권력의 소지자는 같으며 天理와 악한 人欲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陳亮의 이론을 통렬히 비난했다. 그는 陳亮이 대단히 칭찬했던 漢·唐 통치자들의 업적은 動機가 邪惡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4차·6차·8차·9차의 서한을 退溪가 채택한 것은 論爭을 기록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사실 陳亮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한 것은 그 어느것보다 비교적 훌륭한 것이다. 나는 다른 서한도 포함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 朱熹는 이 서한에서, 陳에게 아들의 지식 수준이 어리다는 것과, 아들의 죽음과 장례, 그의 가난, 곤경, 흰 양털로 된 방석과 같은 선물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朱熹가 이념의 문제에 있어선 엄격한 반면에, 인간적 관계에 있어선 온화와 따뜻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인간적 감정에서의 온화성이 張南軒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만큼 잘 표현될 곳은 없다. 이삼십년에 걸쳐 張에게 54편의 서한을 보냈다.³²⁾

그것들은 일종의 정치적·문헌적·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두 가지 유명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中和>와 <仁>에 대한 것이다. 朱熹는 中年에, 『中庸』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情이 일어나기 前後의 情과 中和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로 몇년간을 고심했다.³²⁾ 처음에 그는 <中>은 情이 일어나기 전에(未發) 주로 靜坐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는 스승 李侗의 이론에 충실했다. 점차로 그는 心은 已發의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張南軒이 지도자인 胡南學派의 견해에 접근한 것이다.

그래서 1167년에 良沙에 있는 張을 방문해서 두달동안 대부분 그 문제를 토의하면서 머물렀다. 그가 집으로 대부분 그 문제를 토의하면서 머물렀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후, 心은 已發의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中和>에 대해서 첫번째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멀지 않아 그는 그러한 견해를 버리고 <中和>에 대한 두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心은 已發과 未發이라는 것, 다시 말해 體와 用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는 이 편지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어서 더욱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양한 심리적 상태와 관계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中和>에 대한 세번째 편지를 張에게 보냈다. 그러나 朱熹는 아직도 中和 (Centality and harmony)를 획득하는 구체적 방법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그는 中과 化는 동시 발생적이고 서로 방해되지 않으며, 그래서 體와 用은 자연히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는 네번째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년 정도 다시 생각해 보고, 中和에 대한 두편의 편지를 받은 후에 그는 마침내 이전의 편지 내용들이 모두 낡은 이론들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胡南지방의 여러 학자들에게 116년에 中和에 관한 첫번째 편지를 썼다. 여기서 그는 <敬>과 <致知>의 함양이 서로 병행해 나가야 하며, 그래야 心의 體가 그 고요성에서 中을 얻게 되며, 用 즉 情은 그 발현에 있어 和를 얻게 된다고 하였

32) 『朱子文集』 24 : 27b, 25 : 1a-7b, 30 : 17a-32 : 26b

33) 『中庸』 ch. 1

다. 그래서 <尊德性>과 <格物致知>, <未發>과 <已發>, <體>와 <用>의 종합은 주자학과 도덕철학에서 <已發>, <體>와 <用>의 종합은 주자학과 도덕철학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中和에 대한 이러한 편지들 중에서 退溪는 朱熹 자신이 첫번째 두통의 편지를 폐기했다 하여, 이것을 빠뜨렸다. 또 朱熹와 일치하기 위해, 退溪는 네번째의 편지도 역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는 세번째 네번째 여섯번째 그리고 호남학파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를 선택했는데, 이것들은 근본적 견해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부분의 선택은 退溪의 전체업적을 통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仁의 주제에 관한 그의 선택은 위와 같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다. 朱熹의 편지에서 10통 이상이 이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그의 『仁에 대한 연구』한 편만해도 4가지가 있다. 退溪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했는데, 仁의 心의 本性和 愛之理를 뜻하며, 仁은 天地之生物之心에서 온다는 朱熹의 중심사상을 제외하였다. 또 仁은 意라는 謝良佐(尙蔡, 1050-1103)의 이론과 仁은 天地萬物과 一體라는 楊時(龜山, 1053-1135)의 이론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를 모두 배제했다. 대신에 역사적 철학적 의미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주제인 『仁에 관한 孔子와 孟자의 교훈』을 張이 수집했는데, 이에 대한 朱熹의 비판에는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南軒은 朱熹의 가장 친한 친구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들은 친밀했고 상호존경과 애정으로 가득찼다. 비록 그들은 사상의 제가지 타협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한편 그는 東萊와 좀더 관계를 많이 가졌다. 그는 아들을 그와 함께 공부하도록 보냈다. 東萊는 그를 1175년에 방문해서 『近思錄』³⁴⁾을 함께 편찬했다. 그리고 그와 陵象山을 鵝湖寺에서 만나도록 주선했다. 東萊에게 보낸 朱熹의 편지는 106편에 달한다. 그것들은 세가지 내용으로 묶어질 수 있다. (1) 그의 아들에 관한 것. (2) 仁의 개념에 관한 것. (3) 陵象山과 그의 형제들에

34) 나는 『近思錄』을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The Neo-Confucian Anthology*(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로 번역하였다.

관한 것. 이 가운데 退溪가 선택한 것은 陵의 형제들에 관한 것만을 적당히 택하였다. 朱熹는 東萊에게 다음의 것들을 말했다. 그는 象山을 만나기를 원했다. 陵형제는 즈궁리 잘못을 시인했다. 象山의 제자들은 스승의 오류를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象山은 제자들에게 讀書하기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옛 견해를 갖고 있다. 陵은 朱子와 어딘 山에 갈 적을 계획했다. 象山은 어머니의 碑文을 부탁했다. 그가 몇일 동안 방문했었다. 그의 이전의 경향은 그에게 달려있다. 退溪는 이러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朱熹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더라도, 도덕적인 자기수양 및 개인적 일들에 관한 것과 철학적, 정전적인 논의들에 대한 것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 가장 좋은 실례를 들면, 아마 사위인 黃榦과 蔡元定季通(1135-1198) 및 北溪陳淳(1153-1217)에게 보낸 편지들일텐데, 이들은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에 속한다. 黃榦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과 가족에 관한 일들, 太極이나 儀禮등에 관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退溪의 발췌에서는, 朱熹가 딸의 결혼비용을 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내용의 편지가 빠져 있어서 아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쓴 것으로서, 자기는 제자들이 道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退溪는 文獻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蔡元定에게 보낸 백여통이 넘는 朱熹의 편지들에서는 많은 지면이 元定이 전동한 『易經』을 포함하는 여러 경전들에 대한 논의에 할애되고 있다. 그는 1195년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 몇해동안 元定은 儀禮書에 관해 스승을 도와 주었다. 그는 管樂器에 대한 매우 존중받는 전문가였으며, 편지속에서도 그것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다. 退溪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좋아해서, 위와 같은 것들을 무시해 버렸다.

이런 점은 陳淳은 朱熹의 마지막 10년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연구하지 않았고, 개인적 접촉도 일곱 달동안 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토론은 거의 편지를 통해서 행하여졌다. 그 때문에 남아 있는 여섯 편의 편지들은 매우 길다. 陳淳은 朱熹 제자들중 가장 철학적인 사람이

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론은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것이다. 다행히도 退溪는 當然, 實然, 必然 등의 구별에 관한 陳淳의 긴 질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여전히 개인적 행위에 놓여 있다.

경전연구나 철학적 탐구에 대한 것보다 인격수양에 대한 구절을 더 좋아한 것은 분명히 退溪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몇몇 철학적 구절을 생략한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楊志仁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理가 먼저인가 氣가 먼저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락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程可久에게 보낸, 太極에 관한 두 통의 편지도 배제되어 있다. 何叔京에게 보낸 仁과 天地之心에 대한 두 통의 편지도 무시되고 있다. 林擇之(用中)에게 보낸 편지들에서도 仁에 관한 구절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楊方에게 보낸, 太極에 관한 길고 매우 중요한 편지가 배제된 점은 그의 중심적인 性理學的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히 섭섭한 감을 준다. 이 모든 것은 存性, 養氣, 復性 등에 대한 가르침에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退溪에 있어서는, 朱熹는 孔子처럼 사람들을 聖人다움에 이르도록 이끌고 돕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하나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退溪의 이 저작을 高攀龍景逸(1562-1626)의 『朱子節要』와 비교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많은 저에서 이 두 저작은 비교될 수 없다. 攀龍은 자료를 『朱子文集』, 『朱子語類』에서 끌어 오는데 반해서, 退溪는 단지 『朱子文集』, 그것도 그 안의 편지들만을 인용하고 있다. 攀龍은 『近思錄』의 배열순서에 따라, 十四가지 주제를 十四章으로 나누었다. 그가 이용한 편지들은 서른 통을 넘지 않는 반면, 退溪는 몇백통의 편지들을 다루었다. 사실 攀龍은 주로 語類에 의존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저작의 명칭들은 거의 같다. 退溪는 1534년에 편집했지만 1572년에 출판했고, 攀龍의 各文選은 1602년에 편찬되었다. 시간상으로는 실제로 그리 먼 산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두하가자는 서로를 몰랐다.

攀龍이 발췌한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一章에서 林嵩鄉에게 보낸 生死에 관한 편지를 예외로 하고, 나머

지는 모두 도덕적 수양에 관한 것들인데, 이 中에는 張南軒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들과 몇몇 선비들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 책의 第一章은 道體에 관한 것이므로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마치 爲學之方에 관한 第二章에서 知的 深究에 관한 귀절들이 없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책 전체는 대부분 語錄들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도덕적 노력의 정신으로 충만되어 있다. 退溪와 攀龍은 둘 다 그들이 우선 위대한 스승으로 간주했던 朱子로부터 서로 같은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 같다. 16세기 후반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두 知的 巨匠들이 서로 비슷한 思惟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도덕적 관심이 지금 고찰하는 세번째 著作 『理學通錄』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朱熹의 411명의 제자들, 南軒의 여덟 제자 및 그들의 스물 여섯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 序에서 退溪는 말하기를, 『孔子와 孟子的 제자들은 道에 도달함에 있어 각각 그 정도가 다르며, 어떤 점에서는 옳고 어떤 점에서는 그르다. 그들은 모두 스승의 가르침들의 여러가지 해석가능성들에서 그들의 해답을 찾아냈다. 이와 같은 점은 朱熹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하고 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退溪는 각각의 제자의 설명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傳記, 語錄 및 朱熹의 편지들이다. 그의 참고문헌들은 『宋史』, 『朱子實記』, 『大明一統誌』, 『朱子文集』이었다. 傳記들로는서는 또 다른 문헌들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사람과 장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는 주로 『實記』에 의존했고 그 책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는 그 오류들을 바로 잡아 주었다.

『實記』는 傳記들에다가 몇몇 제자들에 대한 선행의 칭찬들을 첨가한 것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語類』와 『文集』에 의뢰해 본 점에서, 退溪는 先道的이었다. 1576년 『理學通錄』이 편찬되어 나오기 8년전인 1568년에 중국에서는, 몇 십년 전에 宋端儀가 편집했던 『考亭淵源錄』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退溪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 『淵源錄』은 傳記부분이 길고 語錄과 書簡부분은 짧은데, 반면 退溪의 『理學通錄』은 이와 반대이다.

『語類』를 이용함에 있어서 退溪는 『淵源錄』을 훨씬 능가해 있다. 退溪

의 발췌들은 광범위하면서 면밀하다. 그는 『語類』를 매우 주의깊게 연구했고, 적어도 제자들에 대한 朱熹의 가르침들을 포함하는 113章~121章들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 退溪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일곱 사람이 朱熹의 제자로 삼았다. 이들은 아무도 『實記』나 이후의 책들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는 語類에서 증거를 찾아낸다. 또한, 몇몇 다른 경우들에서, 그는 그 학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주장을 지지할 만한 것을 『語類』에서 인용해 낸 유일한 인물이다.

이와 유사한 철저함은 『文集』에서 편지들을 발췌해내는 데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발췌들은 退溪자신의 『朱子書節要』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고 철학과 경전들에 대해서 무관시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불행하게도, 朱熹가 죽기 바로 전날 그의 사위에게 쓴, 黃榦이 道를 이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편지를 빠뜨렸다. 그러나 讀書工夫에 반대하는 包楊의 비평에 대한, 朱熹자신의 註를 이 책에서 다시 찾아 넣은 점은 다행스럽다. 이것은 『節要』에서는 빠졌었다.

『文集』에는 한 제자의 詩經에 대한 해석이 건강부회적이라고 그 제자를 비판하는 편지가 하나 있다.³⁵⁾ 『實記』는 이 비판은 간과해 버리고 단지 그 제자의 의도는 심원하다고 말했다는 朱熹의 칭찬만을 인용했다. 戴銑이 그의 『實記』에서, 후에 宋端儀가 그의 『考亭淵源錄』에서 한 것처럼, 朱熹의 제자들의 德을 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退溪는 의심없이 『實記』를 인용했다. 그 戴銑의 왜곡을 알아 차렸든, 어쨌든 그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까지 戴銑을 추정했던 것이다. 『實記』와 『考亭淵源錄』의 목적은 朱熹學派를 찬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朱熹와 註를 주로 받았거나 혹은 여행에 동반했던 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朱熹의 제자로 포함시켰다. 退溪는 『實記』에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고 거기에다 자신이 몇 사람을 더 보탤다. 『理學通錄』第八章의 一四六人은 대부분 이런 범주에 속한다.

35) 『朱子文集』 39 : 23a, 『答陳齊仲』

朱熹學派에 대한 이런 과다한 열정은 그것이 朱熹의 제자들에 대한 모든 책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 할 만하다. 朱彝尊(1623-?)의 『經義攷』는 朱熹가 經을 전수해 준 제자들의 수를 139名으로 잡고 있다. 萬斯同은 그의 『儒林宗派』에서 그 숫자를 433으로 늘였다. 黃宗羲(1610-1695)는 『宋元學案補遺』에서는 그 배이상인 5221로 되어 있다. 朱熹와 단지 약간의 관계만 있었을 뿐인 사람들도 다 그의 제자로 간주했던 것이다.

『理學通錄』의 경우, 이러한 결점을 『文集』과 『語類』의 세심한 연구에 의해 많이 상쇄되었다. 그것은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많았다. 退溪만이 많은 朱熹의 제자들을 확인해 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했다. 다른 공적들도 있다. 丁克(?-1185)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實記』나 『考亭淵源錄』, 『儒林宗波』들에서는 모두 그 이름을 丁堯로 적고 있다. 그런데 『文集』에는 丁堯, 丁克 그리고 丁復之가 있다. 退溪는 『實記』와는 달리 그를 丁克으로 결정했다. 이 선택은 근거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論語의 『克己復禮謂之仁』이라는 말에서 克과 復과는 뚜렷한 연관이 있지만 堯임국과 復이라는 개념사이에서는 어떤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宋元學案補遺』는 결국에 가서는, 여러책들이 이어 왔던 『文集』속의 誤字를 바로 잡았지만, 만약 退溪의 『理學通錄』을 참고할 수 있었다면 그 교정을 위해 100여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으리라. 나는 『理學通錄』이 한국에서밖에 연구되지 않았고 중국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믿는다. 아울러 五章으로 된 그의 『朱子書節要記疑』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목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다. 사실상 退溪의 모든 著作들이 그럴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규 성 譯)